선화와 선필, 대장경 불사 동참

'평화통일기원 분청팔만대장경 조성 기금마련 선서화전'
서울 봉은사 보우당 5월13일(일)~20일(일)
설정 · 범주 스님 선필, 달마도 등 200여 점 전시
분청기법 대장경 조성, 선장 포함은 최초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분청대장경연구소(소장 정우)는 5월 13일(일)부터 20일(일)까지 서울 봉은사 보우당에서 '평화통일기원 분청팔만대장경 조성 기금마련 선서화전'을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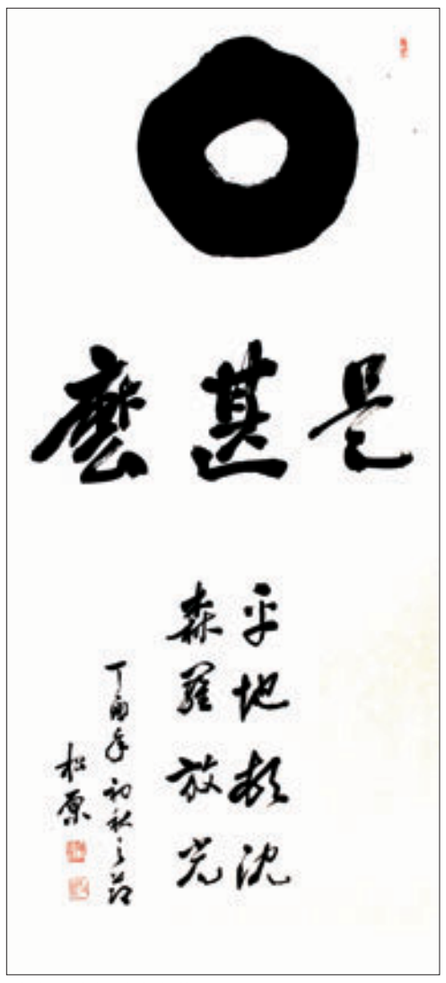
이번 전시회는 '분청기법'이라는 새로운 경판제작기법을 개발한 분청대장경연구소가 남북 평화통일 기원 분청대장경조성을 위한 기금마련 전시로, 범주 스님의 달마도와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의 서예 작품 등 총 200여 점을 전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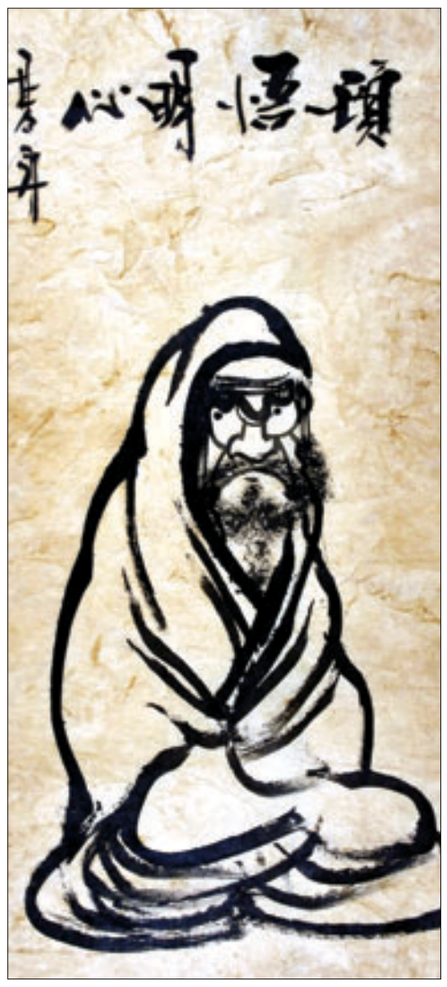
"그 옛날 국난극복을 위해 온 백성이 한 마음으로 한 자 한 자 부처님 말씀을 새겼던 그 때처럼, 이 시대가 요구하는 국가적 염원을 담아 새롭게 개발한 분청기법으로 대장경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분청기법이라는 새로운 경판제작 기법은 분청대장경연구소 소장 정우 스님이 성파 스님의 '분청'을 1년여에 걸쳐 보완해 완성한 제작기법으로, 도자기를 제작할 때 사용하는 '분청'을 이용해 경판을 제작하는 방식을 말한다. 기존의 목판이나 동판을 이용해 제작한 경판보다 보존성이 뛰어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으로, 보관 상태에 따라 반영구적으로 보존할 수 있다.

새롭게 개발된 분청기법은 기존의 목판으로 조성되어 있는 고려대장경이 목판의 한계로 인한 불가피한 변형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시작됐다. 개발자인 정우 스님은 "시대가 발전하여 부처님의 말씀이 다양한 형태로 보존되고 전승되고 있지만 '경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전달'의 개념을 넘어선 것으로, 불상을 모시고 탑을 조성하는 일과 같은 불사의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처님의 금강같은 말씀을 새긴 경판의 한 글자 한 글자는 기도이고, 수행입니다. 대장경의 5천만여 자를 우리 국민 한 사람이 한 글자씩만 새긴다는 생각에서 국가적 염원으로 경판 조성의 원력을 세우게 되었습니다"고 원력의 동기와 전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전시는 고려대장경에는 없는 선장(선어록)부분을 우선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처음 시도되는 불사이며, 기존의 경 · 율 · 논장을 포함한 '평화통일 분청대장경'의 완성은 약 15년이 걸리는 대작불사이다.


설정 스님 作. '시심마'


범주 스님의 달마도

"제가 생각하는 통일은 '작은 통일'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통일은 그 작은 통일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작은 통일이란 '제 자신의 통일', '가까운 사람들과의 통일', '자신이 속한 조직의 통일' 등 작은 통일이 하나 씩 이루어진다면 국가의 통일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번 전시는 평소 정우 스님의 원력불사에 동참하고자 했던 범주 스님의 유지 중 하나로, 문중에서 범주 스님의 작품을 기증했고, 설정 스님 역시 정우 스님의 원력불사에 힘을 보태기 위해 작품을 기증했다. 지난 3월 25일 입적한 범주 스님은 '선묵일여'의 화두 안에서 50여 년 정진하며 달마도를 비롯한 선화(禪畵)로 출가공덕을 회향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은 지난 4월 수덕사 선미술관에서 열린 최마리엘리사벳 수녀의 금속공예전을 통해 선필을 선보인 바 있다.

"얼마 전에 입적하신 범주 스님은 평소 대장경불사에 뜻을 같이 해주셨고, 불사에 필요하다면 작품으로 돕겠다고 하셨는데, 작품을 기증해 주신 문중에 감사하고, 설정 스님 역시 기꺼이 작품을 기증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통일을 염원하는 모두의 서원이 대장경불사를 통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전시회 개막식은 5월 13일 오후 3시에 진행된다. 문의 / 1899-9505(분청대장경연구소)

제3회 천태예술공모전 작품 공모

9월 5~6일 접수, 불화 · 민화 · 서예 등 7개 부문
수상작 10월 17일~23일 인사동 아라아트센터서 전시



천태종(총무원장 문덕)은 다양한 예술분야의 저변 확대를 통한 문화융성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제3회 천태예술공모대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대전의 공모분야는 △전통 · 현대 불화 △조각 △공예 △서예 · 문인화 △민화 △사진 등 총 7개 분야다.

응모 방법은 9월 5일부터 6일까지 작품을 출품원서(소정양식)와 작품설명서(소정양식)를 첨부해 서울 우면동 관문사로 보내면 된다. 사진 부문은 6일 오후 5시까지 이메일(ct-gongmo@daum.net)로 접수하면 된다.

△전통 · 현대 불화와 조각분야는 1인당 2점까지 출품할 수 있다. 규격은 200호(300cm) 미만이며, 표구된 완성 작품만 접수할 수 있다. 조각 분야는 높이 250cm 미만의 완성품을 제출해야 한다. 출품료는 1점당 5만원이다.

△공예, 서예 · 문인화, 민화 · 사진 분야는 1인당 3점까지 출품할 수 있다. 공예분야의 작품 규격은 가로 세로 50cm 이하, 서예 · 문인화 분야는 전지 이하(가로 70cm×세로 130cm), 민화분야는 100호(150cm) 미만, 전지 이하다. 사진 분야는 JPEG파일(최소 3024×2016픽셀, 최소 600만 화소 이상)이어야 한다. 출품료는 공예부문이 1점당 5만원, 서예 · 문인화 분야와 민화, 사진 분야는 1점당 3만원이다.

대상 1명에는 상금 2000만원과 상장 · 상패, 최우수상 2명에게는 상금 각 500만원과 상장 · 상패, 부문별 우수상(분야별 1명) 7명에게는 각각 상금 100만원과 상장 · 상패, 가작(분야별 1명) 7명에게는 상금 각 50만원과 상장, 특선에는 상장 · 상품, 입선에는 상장을 수여한다. 대상 작품은 천태종에 귀속된다.

출품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출품원서, 작품설명서) 작성 미비시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다. 기발표작, 표절작, 사찰 봉안 및 판매된 제품과 타인 명의로는 출품할 수 없다. 기타 공모전의 운영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초대작가 제도는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작가 점수는 제공되지 않는다.

작품 전시회는 10월 17~23일까지 서울 인사동 아라아트센터에서 열리며, 시상식은 전시회 기간 내 진행된다. 심사결과는 금강신문 홈페이지에 게재 후, 개별 통보한다. 문의 / 천태종 서울사무소(02-723-1559). 박재완 기자

조계종 불교음악원, 독일 종교음악제 초청 연주

국제종교음악제 5월 18일~22일, 독일 마르크트오버도르프

조계종 불교음악원(원장 박범훈)이 독일에서 열리는 제14회 국제종교음악제(Festival Musica Sacra International)로부터 공식 초청을 받아 5월 18일부터 22일까지 독일 바이에른주에 위치한 마르크트오버도르프에서 열리는 음악제에서 한국의 불교음악을 연주한다.

독일합창협회가 주최하는 국제종교음악제는 세계 종교의 문화 협력 증진을 위하여 1992년부터 시작된 음악제로 격년제로 개최되고 있다.

세계 5대 종교와 다양한 문화의 음악을 선보이기 위해 총 8개국(독일, 스웨덴, 핀란드, 한국, 인도, 벨라루스, 나이지리아, 알제리)의 음악인들이 초청되어 6일 동안 14회의 공연을 펼친다. 이와 더불어 각 종교음악에 대한 강연도 진행된다.

조계종 불교음악원은 이번 국제종교음악제에서 발표할 불교음악으로 선정 스님의 '화청'과 송나영 외 4명의 '보렴' 등 전통불교음악에 바탕을 둔 창작찬불가를 선정했다.


조계종 불교음악원 자료사진

박범훈 원장은 이번 행사에 대해 "국제종교음악제에 한국의 전통불교음악과 창작찬불가를 최초로 소개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다. 이를 계기로 한국의 불교음악이 세계에 보다 더 널리 알려지길 기대한다."고 이번 행사의 중요성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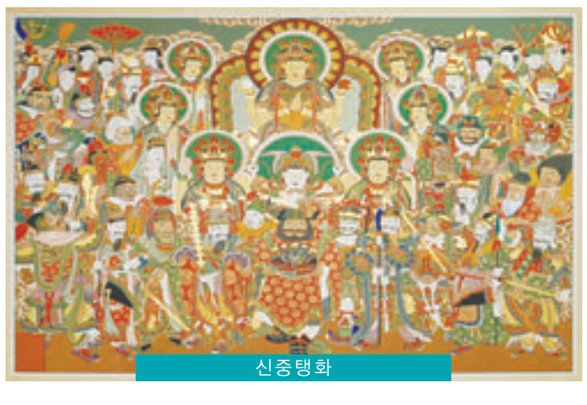
박재완 기자

굴셀건
80ml × 60팩
13만원


지리산 다슬기 眞 골드
無색소, 無방부제, 無화학첨가물로 만들어진 다슬기 엑기스!
껍찔채 가마솥으로 재래식 중탕해 고농축 멸균처리로 누구나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 강화에 좋은 다슬기, 간 기능에 좋은 껍질까지 들어간 2배 엑기스!

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물 맑고 공기 좋은 지리산 일대 국산 야생 느릅나무 껍질(유근피)!
가마솥에 오래 달여 진공포장해 편리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위장을 맑게! 염증은 싹~ 가라앉히는 효과!
100ml × 60팩
6만 5천원
평안할 강
제품문의 : 칠성상회 (02) 879-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한메소프트
입금금액 : 지리산 다슬기 진골드 130,000/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65,000원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상설전시관 100여평 개원



四代傳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동불교미술원
010-6338-5167 / 010-3743-5167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1동 183번지 해동빌딩